

로카 디 파파, 2020 년 10 월 3 일

#daretocare

- 1. 세계 각국 9 개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작 및 인사말**  
과테말라, 볼리비아, 캐나다, 앙골라, 남 아프리카, 에집트,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불가리아와의 연결
- 2. 끼아라 루빅: 보편적 형제애**  
2004 년 5 월 8 일,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끼아라 앞에는 유럽 전역에서 도착한 9 천 여 명의 참석자들이 있었다. 끼아라가 유럽과 같은 모자이크 대륙과 전세계에서 평화를 건설하는 열의를 제공한 역사적 순간이었으며, 보편적 형제애의 조각을 구축했다.
- 3. 형제적 활동 – 1 부**  
자신들의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의 “작은” 활동을 보고 듣기 위해 오스트렐리아, 브라질, 독일, 미국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 본다.
- 4. 나이지리아의 #daretocare**  
포콜라레 운동의 회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는 활동과 돌봄,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보여 주는 나이지리아 여러 지점으로의 여행.
- 5. 이탈리아: 아스콜리 피체노의 환대 및 연대 센터 (PAS)**  
이탈리아 중부 아스콜리 피체노의 몇몇 협회들이 시민의 경제와 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단결하기로 결정하여, 몇 년 전부터 “네트 워크” 경험인 환대 및 연대 센터 PAS 탄생. 몇 개월 전에 한 집을 찾음.
- 6. 젠 베르데와 젠 로소**
- 7. 형제적 활동 – 2 부**  
자신들의 이웃을 돌보는 여러 사람의 “작은” 활동을 보고 듣기 위해 오스트렐리아, 브라질, 독일, 미국 과 베트남으로 간다.
- 8. 이탈리아: 힘내세요! 다닐로 잔쥬키의 100 세**  
지난 8 월 11 일 다닐로 잔쥬키의 백세를 축하했다. 부인 안나 마리아와 함께 40 년간 새가정 운동 책임을 맡았다. 매우 풍요롭고, 주고 받고, 탄생시킨 사랑의 스토리 이다. 우리는 그로타페라타의 그들 집을 방문했다.
- 9. 끼아라 루빅에 관한 티비 영화: 사베리오 데르콜레 인터뷰**

라이 픽션과 함께 끼아라 루빅에 관한 티비 영화를 제작 한 카사노바 멀티미디어 창작 프로듀서 사베리오 데르콜레 인터뷰.

#### 10. 레바논을 위한 평화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몇몇 포콜라레 공동체가 8 월 4 일 항구를 파괴하고 도시의 여러 지역을 훼손한 폭발 이후 그들 역사의 특히 힘든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 11. 프란체스코 교황님과 함께 모두 형제가 되기 위해

포콜라레 운동 회장 마리아 보체는 합동전화 말미에 교황이 회칙 '모든 형제'에서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감수하고 모두가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모이도록 부르시는지에 대해 거듭 말했다.

#### 12. 다음 약속과 결론

약속들: 교육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 EcoOne -통합 생태학을 향한 새로운 방법: "찬미 받으소서" 5 년 후와 프란치스코 경제.

## 1. 세계 각국 9 개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작 및 인사말

음악과 자막:

#daretocare –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형제애의 활동 – 오스트렐리아, 브라질, 독일, 미국, 베트남  
아스콜리 피체노의 환대 및 연대 센터  
힘내세요! 다닐로 잔쥬키의 100 세-이탈리아  
젠 베르데와 젠 로소의 특별한 참여  
#daretocare 활동 – 나이지리아  
끼아라 루빅에 관한 티비 영화 – 사베리오 데르콜레 인터뷰  
레바논을 위한 희망  
합동전화 – 연결된 한 가족

Alessandra Pasquali: 안녕하세요 여러분! *Boa tarde ao Brasil! Boa noite Portugal! Bonsoir a tout le monde!*

Michele Sole: *Hola a todos y a todas! Good evening and good morning to everyone!*

Alessandra: 오랜만에 합동전화를 전송하는 포콜라레운동 국제 총본부 강당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 드립니다. 이 강당이 그리웠지요?!

Michele: 그래요. 이 생방송의 순간에 지구상의 우리 모든 가족들과 다시 만나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엠마우스와 예수스에게 인사드립니다! Ciao Emmaus, ciao Jesús!

Alessandra: 반갑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전염병 때문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이 합동전화의 일부는 로피아노에서 미리 녹화했습니다. 어째서 로피아노에서일까요?

Michele: 당연하지요! 우리 둘 다 젠로소와 젠베르데 본부가 있는 로피아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Alessandra: 아직 우리를 모르는 분을 위해 제 왼쪽에는 젠 로소의 미켈레 솔레이고

Michele: 젠베르데의 알레산드라 파스칼리입니다.

Alessandra: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 동료들에게 인사한다. ciao ragga'!

Michele: 일단 저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왔고, 늘 노래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세계에 입문하고 싶어서 탈렌트 쇼 오디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끼아라 루빅과 일치의 특은을 알게 해 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것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사랑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의 행복과 성취감을 찾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포콜라레에서 살며, 젠 로쏘에서 노래합니다.

Alessandra: 저는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한 후 늘 꿈꿔왔던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3 년 동안 연기를 공부했는데, 바로 연기 학교 안에서 제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던 한 감독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무대에 오르고 싶다면, 전달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삶을 혁신시킨 하느님 사랑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과 열정으로 연극 학교에서 하느님께 “네”를 드렸습니다.

Michele: 생방송으로 저희와 연결된 몇몇 공동체와 연결하여 인사하는 것으로 이 합동전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레바논과 나이지리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전과 고유 한 문화적 풍요로 합동전화 실현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Alessandra: Wow!

Michele: Ciao!

Alessandra: 참으로 대가족이군요! Ciao a tutti, a tutte! 그럼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시 부터 시작합시다. 릴리 거기 많이 모였나요, ciao! *Hola, que tal?*

Lilina Castañeda: *Hola a todos!*

Michele: *Hola!*

Alessandra: 코로나바이러스의 타격을 입은 많은 이들을 돕기위해 일하는 “함께 지탱해 주기” 그룹에 속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언가 얘기해 주겠어요?

Lilina: 예, “함께 지탱해 주기”는 저희 슬로건입니다. 저희는 귀 기울이고, 이해해 주며,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제과, 디자인, 기타, 옴파나다 조리법 등을 가르치고, 자선 복권 판매를 조직합니다. 그 기금으로 저희는 식료품이나 세금 낼 돈을 전달하며 여러 가정들을 도울 수 있었고, 한 보건소를 위해 의료품을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필요하고, 저희는 함께,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 합니다! Grazie!

Alessandra: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Muchas gracias!*

Michele: *Muchas gracias Lilina!*

이제 볼리비아로 가봅시다. 코차밤바의 카를로스, 리디아, 마리아끼아라, 페르난도와 연결되었습니다.

Tutti: Hola! Ciao!

Maria Chiara (in spagnolo, senza traduzione): 저희 가족의 인사를 전합니다. 합동전화에 참여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볼리비아 공동체 모두의 인사와 호응을 전합니다.

Tutti: Ciao a tutti!

Michele: *Gracias!*

Alessandra: 이제 북미 퀘벡입니다. 이본 신부님? *Salut!*

Yvon Desormeaux (non si sente il suo saluto)

Michele: 이본 신부님, 마이크?...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Alessandra: 네, 계속합니다.

Michele: 이제 아프리카 앙골라의 루코키 가정입니다.

Tutti: Ciao!

Lena (in portoghese, senza traduzione): 저희는 레나...

Alberto: ...알베르토 루코키 입니다.

Lena (in portoghese, senza traduzione): 저희는 술선자 부부이고, 여기에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함께 있습니다.

Alberto (in portoghese, senza traduzione): 우리는 합동전화로 일치되어 기쁩니다. 전 세계 끼아라의 모든 자녀들에게 앙골라의 온 사업회 이름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Tutti: Ciao!

Michele: *Muito obrigado, muito obrigado!*

아프리카에서 계속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남쪽으로 1 천 킬로 떨어진 그레함스타운으로 가봅시다. 요아나가 거기서 공부하다가, 코비드 때문에 갇혀서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Joana (inizia col microfono spento)

Michele: Joana?

Alessandra: Joana?

Michele: 요아나, 마이크요...

Joana (in inglese, senza traduzione): 예, 저는 여기 혼자 있지만,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포콜라레 전 식구의 인사를 전합니다!

Alessandra: 이제 이집트 카이로의 포콜라레에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가봅시다. 무슨일이 있나요? (음악과 풍경) 재미있어 하네요!

Uno dei giovani (saluto in arabo, senza traduzione)

Uno dei giovani: 이집트에서 감사드립니다!

Tutti: Ciao!

Alessandra: Ciao!

Michele: Ciao!

Alessandra: Grazie!

Michele: 이제 유럽입니다... (saluto ancora dall'Egitto) 포르투갈 아르코 이리스 소도시에 인사드립니다.

Ana Maia Matos: *Olá a todos, sou a Ana!*

Mário Maia Matos: 안녕하세요? 마리오 입니다. 이 강당에는 비록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 있지만 전, 어른, 사제, 가정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써, 모두에게 인사 전합니다.

Tutti: Ciao!

Michele: *Obrigado!*

Alessandra: 유럽에서 계속해서, 스코틀랜드, 톰 들리나요? Ciao!

Tom Lamont (in inglese, senza traduzione): 스코틀랜드 포콜라레 가족이 인사드려요! 저는 톰이고 우리 가족인데, 손자 헬레나와 펠리시티도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작은 나라지만 넓은 마음을 지녔어요. 전 세계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과 일치를 전해요.

Michele: Bye!

Alessandra (in inglese, senza traduzione): 톰, 11 월에 낳게 될 막내 손주의 순산을 위해 모두가 지나 마리에게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Tom (in inglese, senza traduzione): 네, 그래요!

Michele: 지나 마리 축하합니다!

이 세계 일주를 불가리아의 미트코와 끝냈시다. 차오! 미트코 여러분이 특별한 마리아폴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Mitko: 소피아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알다시피 이번 전염병 때문에 큰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올해 마리아폴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 가까이에 있는 산에서 야영을 했는데 모두 20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재발견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유일한 대가족을 이루는 강한 체험을 했습니다.

Michele: Grazie Mitko! Ciao!

Alessandra: Grazie Mitko!

이본 신부님, 들립니까? 마이크 켜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갑시다!

Michele: 이본 신부님께 인사드리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ringraziano nelle varie lingue)

## 2. 끼아라 루빅: 보편적 형제애

Alessandra: 2004 년 5 월 8 일,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끼아라 앞에는 유럽 전역에서 도착한 9 천 여 명의 참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운동들의 네트워크인 “함께 유럽을 위해”의 첫 약속이었습니다. 끼아라가 유럽과 같은 모자이크 대륙에서 평화를 건설하는 열쇠를 제공한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전 세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형제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ichele: 그리고 단 몇 시간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아씨시에서 당신의 세 번째 회칙에 서명하셨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모든 형제 – 형제애와 사회적 우정에 대하여”이며, 내일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황님께서도, 우리의 세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형제애를 지적했다는 것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끼아라가 슈트트가르트에서 말씀하신 한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와 제목: 끼아라 루빅: 보편적 형제애- 발췌)

자막: 슈트트가르트, 2004 년 5 월 8 일

Chiara Lubich, 포콜라레 운동 창시자: 보편적인 형제애는, 위대한 영혼들이 지닌 심오한 인간적 열망이었으며, 열망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말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으니, 어느 날 사람들이 형제로서 함께 살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형제애는 사업가의 하루 일정을 좌우하고 정치인의 슬로건이 될 것입니다.” [...]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단순히 인도인들 사이에 형제애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자유를 실행함으로써, 인간들 사이에 형제애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가기를 희망합니다.”

보편적 형제애는 또한, 종교적인 영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인류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프로젝트 역시 “자유, 평등, 형제애” 였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면서 수 많은 국가들이 자유와 평등은 어느 정도 실현했지만, 형제애는 실천했기 보다는 외침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누가, 보편적 형제애를 선포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나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부성애를 보여주시면서 “다른” 부류로부터 “같은” 부류를, 원수로부터 친구를 가르는 장벽을 쳐부수었습니다. 존재론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참된 혁신을 이루면서 인간을 억압하는 사슬과 수 많은 형태의 복종과 노예 상태, 불공정한 관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지난 세기의 많은 영신적 조류들은 이 혁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참된 형제적 삶은 아씨의 프란체스코와 첫 동료들이 끊임없이 추구한 특별한 꿈이며, 대담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남,녀, 형제인 태양과 달, 별들과 더불어 온 우주를 끌어 안는 감탄할 만한 형제애의 본보기였습니다.

이 보편적 형제애를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도구는 사랑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거대하고 새로운 사랑입니다. 그분께서는 천상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이 땅에 이식하셨습니다. [...]

이 사랑은, 단지 가족이나 친구들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기를 요구합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자국인과 외국인, 유럽인과 이민자, 자신의 교회와 다른 교회 사람,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인을 사랑할 것을 청합니다

이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어떤 악을 행했든지 용서해 줄 것을 청합니다. [...]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사랑은 구별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 직접, 간접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얘기하고 그에 대해 말하게 되는 사람, 우리가 맡고 있는 일과 연관된 사람, 신문이나 티비를 통해 알게 되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올바른 사람이나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성부인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

이 사랑이 요구하는 두 번째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사랑은 이해타산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사랑받을 수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사랑은 플라톤적이고 감성적이며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행위로 이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한다면, 아픈 이와 아파하고, 기뻐하는 이와 기뻐하며, 걱정하는 이, 확신을 지니지 못한 이, 배고픈 이들과 함께 가난한 이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하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느끼면서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여러 명이 이 사랑을 살게 되면 상호적인 것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분의 것이고 ‘새로운’ 것이라고 하시는 계명입니다. [...]

이 서로간의 사랑은 개인만이 아니라 그룹, 운동, 도시, 지역, 국가들 역시 살도록 불렀습니다. 현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의 “사회적” 의식을 지닐 것을 요청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다른 이의 조국을 내 조국처럼 사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상호성 안에서 완전함에 도달하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교 정신의 강력함을 보여주니, 이 땅 위 모든 남, 녀 사이에 예수님의 현존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분의 이 약속은, 형제애의 보증이 아닐까요? 가장 탁월한 형제이신 그분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다면 우리 서로가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천상으로부터 가져오신 사랑을 살면서, 점점 더 확장되는 형제애의 한 부분을 세상 안에 형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박수)

### 3. 형제적 활동 1부

Alessandra: 끼아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는 우리가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어 줄 때 가능합니다.”

저희는 끼아라와 함께 합동전화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끼아라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이야기와 소식들의 “북극성”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주인공들은 용기를 내어 과감히 누군가를 보살폈습니다. 바로 올해 포콜라레운동의 젊은이들이 모두에게 선언한 패스웨이의 슬로건, Dare to Care 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지탱하고, 재건하기 위해 각자가 시작한 것을 모읍니다.

Michele: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도시, 우리 학교에는 이 전염병의 시기에 무엇이 필요할까?” 이는 텍사스, 브라질, 독일의 첫 짝막한 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몇가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포콜라레 공동체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시민들의 문제와 고통에 답하기 위해 한 것을 보도록 합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음악)

Clint Ressler, 텍사스 시, 미국-텍사스 주 (in inglese): 팬데믹이 닥쳤을 때 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이 단절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저 자신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집에 갇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본당 신자들을 방문 할겸, 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소셜 미디어에 자전거를 타고 신자들 집에 가정방문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한 부제가 인터넷에서 주소를 업로드하면 하루에 방문할 경로 지도를 보여주는 앱을 알려주었어요. 반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그들의 문에 나타났을 때, 신자들이 놀라는 모습은 재미있었어요.

저는 본당 사제로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선교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본당에 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에서 선교사가 되는 그 효과를 깨달았어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인 제자가 되라고 초대하셨는데 팬데믹이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할 기회를 주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찾아 오는 본당의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본당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매일 이웃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셀카를 찍기도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런 단순한 몸짓이 그리스도 신비체와 친교 및 유대를 얼마나 강화시키는지 보게 되요.

(음악)

Márcia Sewaybricker, 브라질-소로카바 (in portuguese): 저희는 마르시아와 루이스이고 다섯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막내 딸 가브리엘라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전염병은 브라질을 강타하여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더욱 부각 시켰습니다. 우리는 작은, 수제 케이크와 빵집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루이스는 빵을 만들어 몇몇 가정에 선물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양을 위한 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왓츠 그룹과 공유했는데, 그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Luiz Sewaybricker, 브라질, 소로카바 (in portuguese): 우리는 어려움 처한 가정들을 접촉하는 기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한 본당에서 그들이 전염병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누가 없고, 자신을 보호 할 마스크 조차 없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라는 나와 함께 제빵 일을 하는 것 외에도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 마르시아는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빵과 함께 비누와 마스크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Gabriela Sewaybricker, 브라질, 소로카바(in portuguese): 연대 빵집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항상 적시에, 예기치 못한 해결책으로 개입하십니다. 지금까지 빵 2,200 개, 비누 1,900 개, 마스크 900 장을 생산했습니다. 우리는 250 가구 이상의 가족, 노숙자 및 보호소의 어린이들에게 도달하는 11 개의 기관과 협력합니다.

Márcia Sewaybricker, 브라질, 소로카바(in portuguese): 우리가 커다란 문제에 당면해 있을 때에도, 항상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냥 시작하면 누군가가 말했듯이 연대적 사랑의 물결을 만드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

Ulrike Comes, 독일-졸링겐 (in tedesco): 올릭입니다. 독일 졸링겐의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칩니다. 부활절 휴가 직전에 학교들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고,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줌(Zoom) 플랫폼을 알고 있는 유일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도 할 수 있도록 도와, 얼마 후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로 작업 양식을 보냈지만,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숙제와 수학 공식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녹화하고, 물리 실험을 온라인으로 공유 할 영상 제작을 위해 학교에도 갔습니다.

학교 폐쇄는 많은 가정, 특히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부모를 돕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수업으로 서너 명씩 온라인으로 만나 친해지고, 숙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대화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과 그렇게 가까워 지는 것도,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전염병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습관과 안전을 떠나 계속해서 창의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며, 또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음악)

#### 4. 나이지리아의 #DARETOCARE

(음악)

Speaker: 나이지리아와 전 세계에는 사회 내의 하느님의 사랑의 힘을 믿는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공동선을 위해 행동하는 “활동적인 시민”이며, (주변 환경 과 음악) 다른 사람들을 돌볼 용기를 갖고 있다

Josephine Madu, 카사 알바, 바틱 디자인 전문가 (in inglese): 검정 색은 대담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입니다! 사랑을 담아 바르게 사용하면 다른 색상을 두드러지게 하여 빛나고 발산하게 합니다.

(음악 과 자막: 나이지리아, 아부자)

Speaker: 국제 컴퓨터 과학 분야의 작업 제안은 이 젊은 나이지리아 인이 자신의 나라를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Samuel Robert Kwasari, M.D., Be The Help 재단 CEO, (in inglese):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 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식량 공급을 위해 농업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토지 경작자와

농민의 소득증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한 번에 한 마을씩 돕기로 했습니다. (주변 환경)

저는 다른 일자리를 제안 받았지만 내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곳은 미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정글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농업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와서 보는 모델의 장소입니다.

(음악 과 자막: 나이지리아, 오니차)

Speaker: 남동쪽의 큰 시장 마을인 오니차로 이동한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

Regina Amede Akudu, "엄마 레지나", Crown of Thorns Soup Kitchen 창설자, 오니차 (in inglese): 저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완전성을 향한 세상을 꿈꿉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Clara Osemenam, Crown of Thorns Soup Kitchen 협력자 (in inglese): 엄마 레지나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걸인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약 50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오니차 주위에 약 300 명을 먹입니다.

엄마 레지나는 자금을 마련하고, 저는 무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음식 분배를 돕는 다른 그룹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홀로 이런 일을 하도록 놓아 둔다면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미치지 못하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작더라도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도와야 합니다!

Regina Amede Akudu, "엄마 레지나", Crown of Thorns Soup Kitchen 창설자, 오니차 (in inglese): 특히 이 대유행 기간에,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그러니 계속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무언가에 영감을 주실 때는 그것을 지원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활동은 신비롭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리를 떠나 학교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능한 사람들은, 일을 배워서 구걸하는 대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Joseph Johnson Osayande, Crown of Thorns Soup Kitchen 후원자 (in inglese):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어느 누구도 절대 과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걸인의 품에 안긴 그 아이가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Speaker: 또한 오니차의 젊은이들은, “카사 알바 바틱-재봉 훈련 센터”라는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Chinasa Blessing Okafor, 카사 알바 연습생(in inglese): 저는 거의 2 년 간 카사 알바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신적, 직업적으로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재봉을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염색, 매듭, 왁싱 및 바느질과 같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배워 완벽하게 디자인된 드레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것입니다!

(음악)

Roseline Chigozie Onuorah, 패션 디자이너 (in inglese): 저는 패션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하며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바느질을 배운 카사 알바에 가서 가르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막: 카사 알바 25 주년  
(주변 환경)

Speaker: 25 주년을 축하한다!  
(주변 환경, 음악 과 자막: 나이지리아 아부자)

Speaker: 이 전문 건축가는 현재 연방 수도 인 아부자에서 빌라를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스 근처 고향 마을의 과부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Chundung [Tutu] Gyang, 건축가 및 Jos Acha project 창설자 (in inglese): 저는 평화로운 조스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위기로 인해 분리가 일어났고,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졌고, 매우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위기로 많은 살인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남자들이었으므로, 아내들이 생계를 꾸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도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Delphine Asu, 방송인 및 콘텐츠 제작자 (in inglese): 당신은 마을을 방문하고 떠나는 다른 도시의 여성 일 수도 있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Chundung (in inglese): 저는 밀을 재배하는 조스의 우리 공동체로 돌아 왔습니다. 돌아 가신 어머니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카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여자들을, 그들이 재배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 작물 가공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삶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제게 부모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지요. 그런데 그 들 중 몇몇은 제가 필요한 시기에 저를 위로해주러 왔었습니다.

Delphine (in inglese): 때로는 특히 나이지리아와 같은 개발 도상국에서는,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을 돌보는 리더가 있지만, 어떻게 마음 속에 “사랑을 지닌” 시민이 될 수 있을까? 묻곤합니다.

Chundung (in inglese): 매우 다양한 나라인 나이지리아 인으로서, 일치하지 않을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결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서 왔든 모두를 받아 들여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Delphine (in inglese): 황금률!

Chundung (in inglese): 예, 황금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목적을 위해 지상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얼굴을 보야 할텐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Delphine (in inglese): 국가로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Chundung (in inglese): 개인으로서 입니다. 개인이 국가를 구성하기 때문이지요. 각자가 옳은 일을 한다면, 공동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개인이 나쁜 짓을 하면, 공동체 전체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음악)

Ada (in inglese): 온 마음 다해 말하세요!

Benjamin (in inglese): 나이지리아의 “daretocare” 볼륨을 높이세요!

(음악)

Alessandra: 보내주신 자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 자료를 준비해준 델핀과 앤, 브라질의 루이스, 가브리엘라 와 마르시아, 독일의 울릭, 텍사스의 클린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5. 이탈리아: 아스콜리 피체노의 환대와 연대 센터 (PAS)

Alessandra: 이제 가까이 있는 이탈리아 중부의 아스콜리 피체노로 자리를 옮겨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대와 연대 센터”의 약자 PAS 에 대해 알아 보러 가봅시다.

(음악 과 자막: 이탈리아, 아스콜리 피체노)

Lorenzo Russo, 합동전화: 우리는 아스콜리 피체노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 지방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 도시는 탑, 종탑, 대리석으로 꾸민 궁전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강한 사회적 불안이 존재합니다. PAS 협회의 자원 봉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매일 봉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음악)

Pino Felicetti, 현대 및 연대 센터 관장: PAS 센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2015 년에 “사랑은 빈곤을 이긴다”라는 세미나를 여기서 개최했는데 베라 아라우조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아라우조 교수는 “여기에 사회적인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언자적인 말이었습니다.

Carla Meletti, 현대 및 연대 센터 봉사자: 우리의 삶은, 빈곤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일한 사람들과 서로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경험과 기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Pino Felicetti: 현재 PAS 에는 17 개의 단체 있습니다. 시작 때부터 개별 단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 형성을 통해 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Carla Meletti: 우리의 근본적인 기여는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일치의 카리스마에서 얻은 경험입니다. 소수의 협회에서 시작한 우리는 이제, 이 현실의 가치를 파악한 교구와 아스콜리 저축 은행의 근본적인 공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곳에서 17 개의 협회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Pino Felicetti: 어느 날 아침 한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그는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싶어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은 심한 치통 때문에 울면서 왔습니다. 즉시 그를 맞아들여 치료를 했는데,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매우 기뻐하며 되돌아와 우리에게 감사를 표했고, 지금은 자주 우리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는 사랑이 얼마나 개개인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음악)

Cesidio Baligioni, 환대 및 연대 센터 봉사자: 오늘은 첫 접시는 호박과 감자를 곁들인 토마토 소스 파스타, 두 번째 접시는 판체로티를 요리 합니다. 어제는 65 인분의 식사를 준비 했는데, 조금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지만, 모두가 온다는 가정하에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늘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arbara D’Erasmus, 환대 및 연대 센터 봉사자: 이 협회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저는, 어차피 어린 자녀들과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잘됐다고 했습니다. 2 월에 이 협회에 가입했고 3 월에 코비드 때문에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다양한 예방 조치와 함께 책임감있게 참여 했고 모든 것이 잘되었습니다. 하루에 80 명분 이상의 식사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없었고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협회가 있었지만 각자 따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PAS 의 탄생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환상적인 서비스가 나옵니다. 혼자 일하는 것과 함께 일하는 것은 다른 일이지요. 훨씬 더 많은 것을 합니다.

Pino Felicetti: 우리는 이 것이, 지역적이긴 하지만, 일치된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실천하는 형제애의 일면입니다. 일치된 세계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위해 서로 도울 때, 이 일치된 세계의 수호자가 되며, 어느 모로든 그것이 실현가능해지게 합니다.

(음악)

Michele: 다시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노 펠리체티와 아스콜리 PAS 센터의 모든 협력자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멋진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환대와 연대 센터” [www.pas-ap.it](http://www.pas-ap.it) 웹사이트에 가보실 수 있습니다.

## 6. 젠 베르데와 젠 로쏘

Alessandra: 이제 이 세계 여행의 절반 쯤에 이르렀습니다. 전염병은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고, 공연가들의 삶도 바꾸었으므로 우리 젠 베르데와 젠 로쏘의 삶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국내나 국제 순회공연을 중단해야 했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했던 것은 관중들에게 가까이 머물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Michele: 그래요 알렉산드라, 우리에게도 록다운은 힘든 시기였지만,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노래, 스트리밍이나 생방송으로 다른 이들과 가까이 있으려 했습니다.

특히 코비드로 인해 입원했다가 얼마 전에 퇴원한 이탈리아 북부의 한 친구가 기억나는데, 그는 인공 호흡기를 착용하고 우리의 스트리밍을 보는 것이 그에게 싸울 힘을 주었다고 써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형제애를 건설하는 것이, 사실, 현재 11 개국 출신의 22 명으로 구성된 젠로소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저희 최신곡 “세상의 쇼크”의 몇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을 보살피고, 자연을 구하고 인류의 선익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필요에 대해 말하는 곡입니다.

(젠 로소 노래 비디오 클립 일부)

Alessandra: 감사해요 미켈레, 감사합니다 젠로소, 이 노래로 각자 이 땅을 구하기 위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네요.

우리 젠 베르데에게도 이 격리 시기는 특별했습니다. 3 월에 저희는 스페인 순회공연 중이었는데, 급히 다시 떠나왔습니다. 이탈리아는 완전히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14 개국에서 온 19 명인 저희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로부터 도달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큰 긴장을 자아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가장 힘든 기간 중에 저희는 전화 통화나 줌, 스트리밍을 통해 많은 사람,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창작의 시기이기도 했는데,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곡도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빈센트의 노래, 내게 해 주었다”라는 제목의 노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처음으로 미국 순회공연 중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의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기되었지요!

이 노래는 빈센트회와의 수년간의 공동작업으로 탄생했는데, 끼아라의 특은과 빈센치오 데 바올리 성인의 특은 사이의 조화와 관련된 곡입니다. 상대방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 보고, 차별없이 모두를 보살피라는 초대곡의 노래입니다.

(젠 베르데 비디오 클립 일부)

Michele: 감사해요 알레, 감사합니다 젠베르데. 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 더욱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잊지 말 것을 상기시켜주세요.

Alessandra: 지금 이 순간처럼 우리의 예술가로서의 소명은 그 자체에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음을 느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귀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큰 응원을 느낍니다.

Michele: 그래픽에서 보다시피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하며, 새로운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자막에서 저희의 모든 소셜 네트워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뮤직 플랫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 7. 형제적 활동 – 2 부

Alessandra: 때로는 약이 너무나 요란스러워 선을 능가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선은 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보시듯이, 때로는 그저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Michele: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용기에 대해 말합니다. 이제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의 3 개의 짧은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8 월 11 일 기쁘게 다닐로 잔주키의 100 세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부인 안나 마리아와 더불어 40 년 이상 새가정 운동 책임자로 지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 그로타페라타에 있는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먼저 3 개의 스토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음악)

Rita Bersch,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in portoghese): 저는 물리 치료사이며 보조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조 기술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영양, 위생, 운동 및 의사 소통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 영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요 호흡기 문제와 그에 따른 의사 소통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 지역 및 세계적인 상황에서 한 그룹 친구들과 함께, 대화가 불가능해 질 때 돕기 위해, 대체 의사 소통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내려는 메시지를 지적할 수 있도록 상징적 그림이 있는 이와 같은 간단한 대체 의사 소통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이것들을 지적하며 “숨이 가쁘다”, “통증이 있다”, “메스껍다”, “피곤하다” 또는 “두렵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군에는 “도움을 원합니다”, “의사를 불러주세요”, “가족을 불러주세요”,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와 같은 요청과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 소통을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를 쓸 수 있는 문자 판과 통증과 같은 증상을 강조한 후에 그 증상이 있는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증상의 강도를 표현 할 수 있는 인체도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병이므로 이런 자원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불어, 영어, 독일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문서고에 액세스해서, 인쇄하고, 분류하여, 여러분 도시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원이 이미 브라질 전역의 많은 병원, 의료 센터 및 구급차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자료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사 소통을 확립하고,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한 의료진과, 환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변화하고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환자 측에도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고통과 긴장을 덜어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음악)

Vince Fazio, 오스트레리아, 멜번 (in inglese): 이 팬데믹이 시작된 3 월에 본당으로부터 우리는 본당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친 연로한 본당 신자들에게 연락하며 그들이 본당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

저는 매우 기쁘게 응답했고 매주 토요일에 그 분들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화 할 12 분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을 몰랐고 그 분들도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몇 번의 대화는 어색해서 매우 짧고 의례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훨씬 더 가깝게 느꼈기 때문이 이 경험은 완전히 바뀌 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가족적인 느낌이 있었고, 그 분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늦으면 걱정하셨습니다.

한 할머니와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의 악화로 인해 끊임없이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화할 때 그 분의 목소리를 통해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를 끝내기 전에 그분이 좀 더 편안하고 평온해 지셨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 하시고,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분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는 더 자유롭게 대화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서로를 더 잘 알아 가고, 이미 이룬 가족 관계를 계속 건설할 수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음악)

Win, 베트남 - 호치민시 (in vietnamita):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의 윈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과 함께 있는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 한 친구에게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은 고지의 일부 소수 민족 아이들의 배고픔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 할 때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이 봉사 활동을 해왔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저를 기쁘게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번 여름에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약 200 명의 아이들을 돕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우수한 성적을 받은 보상으로 부모님에게서 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 상금에 만족하는지 물으셨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게 “너의 행복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지 않겠니?”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촌 신부님의 도움으로, 어느 일요일 미사 후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환경을 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모두 협조적이었고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앞으로도 더하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행복은, 정말로 제가 준 것에 대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100 배의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 8. 힘내세요! 다닐로 잔쥬키의 100 세

Danilo: “내가 100 살이 되었다고요?”

Anna Maria: “그러게요... 그래요”

Danilo: “100 살이라고? 그럴리가?”

Anna Maria: “그래요”

Danilo: “그럴 수 있지... 만세!”

Anna Maria: “건배!” (음악)

Speaker: 다닐로 잔쥬키와 그의 아내 안나 마리아는 1950 년대에 포콜라레를 알게 된 최초의 가족 중 하나였다.

자막: 안나 마이라와 다닐로 잔쥬키

Danilo: 안나마리아는 늘 나를 믿어주었어요. 내가 틀렸을 때에도 그녀는 늘 나를 믿어주었어요. (...) 그렇지요? 그래,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은 저 곳 천국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한 것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음악)

Speaker: 그의 100 세를 맞아 전 세계 많은 가족들의 애정과 감사와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과, 포콜라레 회장과 공동 회장, 그가 태어난 이탈리아 북부에서 수십 년 전 카스텔리 로마니에 도착한 이 시민을 기념하는 그로타페라타 시장의 축하 인사가 스트리밍을 통한 파티에 도달했다. (음악)

Speaker: 젊은 시절 다닐로는 전쟁을 겪었는데, 두 번이나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다. 이는 그에게 생명에 대한 큰 사랑을 남긴 경험이었다.

자막: 로카디파파, 2004 년 10 월 1 일

Danilo: 1950 년 봄이었는데, 나는 젊은 엔지니어였고 밀라노에서 건축현장 일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카르디날 페라리”라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곤했는데, 항상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 중 한 명이 내가 있던 테이블로 왔습니다. 저녁 7 시 였는데 나는 건축일에 지쳐서 일찍 자러가고 싶었습니다. 굴리엘모 보셀리였는데, 그는 나에게 “잔쥬끼, 오늘 저녁에 트렌토에서 한 처녀가 새로운 경험을 얘기하러 오는데, 올래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의 상 그에게 “간다!”고 했고, 갔습니다. 젊은 여성은 지네타 칼리아리였고, 그녀는 이 그룹의 젊은이들에게 운동의 초창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온 마음과 온 영혼,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강하게 남았습니다.

(음악)

Speaker: 얼마 후 그는 안나 마리아와 결혼한다. 그들은 일치의 카리스마에 대해 깊이 알게 되면서, 하느님께서 그들이 교회에 많은 새로움을 제시 하는 길인 기혼 포콜라리니로 봉헌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막: 로카디 파파, 2011 년 4 월 18 일

Danilo: 1962 년에 교회로부터 이 운동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교회 신앙성의 많은 연구 끝에 승인했지만, 우리 기혼 포콜라리니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끼아라는 이지노 조르다니, 스파르타코 루카리니와 나를 교회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분에게 가서 우리의 상황을 간청하게 했습니다. 그 카푸치노회 신부님은 우리의 말을 친절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열망은 이해하지만, 당시 포콜라레가 제안 한 것처럼 기혼자를 종교 공동체에 소속시키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구타당하여 다리 사이에 꼬리를 내린 개처럼 끼아라에게 돌아갔습니다.

끼아라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의 성소는 천국에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 년 후 교회법이 변경되었고 우리는 완전한 권리를 지니고 포콜라레에 들어갔습니다.

(박수 와 음악)

Speaker: 다닐로는 존경받는 엔지니어이자, 시의원, 지역 교회 종사자로서의 그의 경력을 계속 쌓아 갔지만, 끼아라 루빅이 카스텔리 로마니로 이사하여 새로운 포콜라레 센터 건설 작업을 하도록 요청했을 때, 안나 마리아와 함께 주저없이 이를 수락했다. 그는 치타 누오바 지에서 편집일도 했다.

Danilo: 치타 누오바에서 10 년 동안 일한 후에 끼아라는 더 직접적으로 가정들을 위해 일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하고, 모든 대륙, 모든 조건의 가족을 만나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행을 할 때마다 받는 인상은, 세계 어디든 우리 집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끼아라가 세운 가족은 보편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음악)

Speaker: 다닐로의 큰 열정 중에는 그림 그리기가 있다.

자막: 로카디파파 2017 년 2 월 13 일

Danilo: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끼아라가 나에게서 이런 예술적 경향을 포착하고, 예를 들어 이상과 예술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에게 맡겼습니다.

(음악)

Danilo: 이건 우리 모험에 동참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하고, 메시지를 남길 기회이네요. 용기, 항상 용기, 항상 항상, 항상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삶이 끝날 때 우리에게 용기를 가졌었냐고 물을 것이고,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행복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악 과 자막: 합동전화 모든 분들 용기내세요!

Alessandra: 감사합니다, 다닐로, 안나 마리아,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않도록 밀어 줍니다. 브라질의 리타 베르슈, 오스트레일리아의 빈스 파지오, 호지민 시의 느구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9. 끼아라 루빅에 관한 티비 영화: 사베리오 데르콜레 인터뷰

Alessandra: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몇달 전부터 끼아라 루빅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이탈리아 TV 영화 한편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누가 이 영화를 만들고 있고, 다큐멘터리인지 아닌지, 끼아라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일부 몇 해만 다루는지.. 등등을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라이 픽션과 더불어 끼아라에 대한 이 TV 영화를 제작한 카사노바 멀티미디어의 제작 감독 사베리오 데르콜레를

찾아갔습니다.

(주변 환경, 음악 과 자막: 이탈리아-로마)

Stefania Tanesini, 합동전화: 카사노바 멀티미디어는 이탈리아 국영 텔레비전 라이 픽션 과 함께 포콜라레 운동의 창시자인 끼아라 루빅에 대한 TV 영화를 제작 중인 영화 제작사입니다.

Voce sul set (maschile): 레디! 고!

Stefania Tanesini: 트렌 티노, 로마 및 그 주변 지역 촬영이 막 끝났고, 라이 1 방송에서 영화가 개봉 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사베리오 데르콜레는 카사노바 멀티미디어의 창작 프로듀서입니다. 그의 임무는 영화의 아이디어에서 방송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전체 과정의 예술적인 관점, 특히 스토리 구성의 관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Stefania: 사베리오는 이 일을 24 년 동안 해오고 있고, 내가 틀리지 않는다면, 약 40 편의 영화와 TV 프로젝트를 제작했고, 그 중에는 코코 샤넬 또는 전쟁과 평화, 요한 바오로 2 세 와 같은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작품들도 있지요. 끼아라 루빅에 관한 이 영화는 당신에게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Saverio D'Ercole, 카사노바 멀티미디어의 창작 프로듀서: 나는 11 살 때 끼아라의 이상을 만났으니, 사실상 내 인생인 셈이지요. 끼아라가 말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종종, 이 스토리를 상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의 탄생에 기원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적인 꿈이었습니다.

(음악)

라이 픽션의 전 감독, 티니 안드레아타는 몇 년 전에 지난 과거의 인물일지라도 위대한 이탈리아 여성의 전기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은 끼아라를 제안 할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즉시 받아들이고 3 년 동안 함께 작업해 준 라이 씨네마 이사회 의장인 니콜라 클라우디오씨와 라이의 담당부서 책임자 파브리치오 자피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카사노바 엘리세오 픽션의 프로듀서 루카 바르바레스키씨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엄청난 영화 제작비용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전달하는 내용” 때문에 제작의 의지를 확고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Stefania: 끼아라 루빅과 같은 복합적인 인물을 1 시간 반의 영화에 집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니, 간단하지 않은 선택을 해야했을 것입니다. 끼아라 루빅에 대해 어떤 것을 얘기하기로 했습니까?

Saverio: 90 분 또는 100 분 분량의 영화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무엇을 넣을지 아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작업에서 작가 자코모 캄피오티와 뛰어난 감독 루이사 코타 라모시노와 레아 타푸리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프란체스코 아를란치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들의 긴 목록은 있었지만 스토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서술 부분을 제한하려고 노력하면서 스토리의 핵심이 40 년 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큰 고통을 감수하며 끼아라가 교회의 조사를 받았던 50 년 대를 큰 틀로 하며 40 년 대에만 제한하였습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의 80%는 43 년에서 46 년 사이의 트렌토가 됩니다.

누군가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픽션이라는 점입니다. 픽션은 흥미 진진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창작적인 여백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끼아라의 스토리에 드러나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그 진실을 존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음악)

Stefania: 끼아라 루빅은 유명한 이탈리아 여배우 크리스티아나 카포톤디가 맡았는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복합적인 긴 삶을 산 끼아라의 인물에 빠져 들었지요, 이 영화에서는 어떤 끼아라가 드러납니까?

Saverio: 우선 명확히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끼아라는 작가이며 공동 저자이자 감독인 자코모 캄피오티와 크리스티아나 카포톤디가 만든 끼아라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이 두 사람 다 이전에 포콜레를 몰랐거나, 적어도 이런 운동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인의 시선으로 끼아라에게 접근을 했는데 이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각자 자기 고유의 전문성과 자신이 지닌 재능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인데, 이 두 사람 즉 공동 저자이자 감독인 자코모와 배우인 크리스티아나의 예술적 차원의 만남이 이 영화에서 예외적인 끼아라를 탄생 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코모와 크리스티아나의 솔직하고, 성실하며, 깊이있는 예술적 만남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포함해서 끼아라를 알았던 우리 각자가 지닌 끼아라의 이미지를 제쳐두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Stefania: 사베리오 마지막 질문은, 아마도 모두가 한 질문일 것으로, 영화가 언제 방영 될 것이고, 이탈리아에서만 방영 될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도 방영 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Saverio: 2021 년 초에 방영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영화시장 배급의 가능성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영화 배급을 위한 수입요청이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런 요청이 있다면 전 세계에 배포가 될 것입니다.

Stefania: 감사합니다 사베리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연락합시다.

Saverio: 네, 그렇게 합시다.  
(음악)

## 10. 레바논을 위한 희망

Michele: 끼아라의 스토리는 여러 해 전 제 2 차 세계대전의 폭격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오늘날 세계 각처 파괴된 도시의 잿더미 속에서 형제애의 이상이 살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베이루터에서 몇몇 포콜라레 공동체들이 저희에게 8 월 4 일 항구를 파괴하고 이 도시의 여러 지역에 피해를 준 그 폭발 이후 그들 역사에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싸이렌 과 자막 (in inglese): 8 월 4 일, 도시 중심부의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Nour Bouzamel (in francese): 폭발 당일 저는 항구에서 1 마일도 안되는 곳의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1~2 초만 빨랐더라도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먼지로 뒤덮이고 연기로 둘러싸였습니다.

한 부인이 울면서 발 부상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도로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름길을 이용해 도시를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싸이렌)

Salim Khouri (in arabo): 폭발 당일은 다른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항구 앞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 시 5 분경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폭발 때 제 자리 옆에 있는 창문의 유리가 부서졌는데, 그 때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다쳤을 것입니다. 지금도 경보 사이렌 소리가 귀속서에 맴돕니다.

(음악)

Georgette Mailhac (in arabo): 이 비극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1년 이상 유례없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비드-19 대유행이 야기한 어려운 상황은 차지하더라도, 레바논 파운드는 끔찍한 붕괴로 80% 이상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제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파괴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무언가를 지을 때마다 모두 무너지는데 어떻게 아직 미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Nour Bouzamel (in francese): 폭발 당시 저는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제 삶이 끝났다는 이상한 느낌. 무한같은 몇 초의 두려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제 내면에서 '제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 하시며, 그 누구도 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때 저는 삶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Georgette Mailhac (in arabo): 참으로 제게 희망을 준 것은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레바논 국민과 전 세계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너머 바라 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 베이루트시를 강타한 비극이 있는 이후, 제 생각은 다시 한 번 사랑하는 레바논으로 향합니다...

(음악)

Salim Khouri (in arabo):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가장 큰 피해 지역인 제마이제, 과란티나, 베이루트 지역을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모든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오늘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제 휴가 중 하루를 내어서라도 저는 피해지역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누구든지 돕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일과가 끝나갈 무렵 저의 상사는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휴가로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음악)

Marie Claire Amidi (in arabo):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나는 단지 커튼을 고치고, 먼지를 털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앉아서 듣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사랑을 느끼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Georgette Mailhac (in arabo): 여기 레바논에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100 가구 이상을 지원하는 후원 활동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우한 가정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기초 생필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영상)

Marie Claire Amidi (in arabo): 희망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그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괴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고, 일치가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고 계속 믿습니다.

(음악)

Alessandra Pasquali: 감사합니다. 누르, 조르제트, 살림, 마리클레르, 그리고 에랄도와 리타에게도 분명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베이루트에서 이 도움을 주신 것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Michele Sole: 저희는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방식으로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첫 지원을 위해 함께 가동된 포콜라레운동의 긴급 조정을 통해 기부를 하고, 현재 AMU 와 AFN 을 통해 아파트와 상점의 재건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원거리에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부를 하실 분들은 AMU 의 사이트 “우리를 지켜주세요(Sostienici)”나 AFN onlus 온라인의 “지금 내어주기(Dona Ora)” 페이지로 가서 레바논 긴급 상황을 위해 어떻게 기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1. 프란체스코 교황님과 함께 모두 형제가 되기 위해

Alessandra: 여기 저희와 함께 엠마우스가 계십니다. 이 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레바논의 마리클레르가 말했던 마지막 말 “희망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그 희망을 찾고있습니다.”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엠마우스 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Emmaus: 어디서 찾을까요? 저는 끼아라의 첫 메시지를, 끼아라가 운동의 초창기부터 우리에게 말한 사랑, 그 뿌리를 하느님에게서 찾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기억나나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끼아라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쬐어주시는 불꽃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순간을 살았습니다. 이 불꽃은 하느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넣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며, 하느님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합동전화 시작 부분에서 들은 끼아라가 메시지에서 직접 말한 그 사랑. 즉, 이타적이고, 보편적이며, 받아들일 줄 알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께서 각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 주시는 하느님 사랑의 씨앗인 작은 불꽃으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고 마음에 이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끌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만약 끄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불꽃은 씨앗이 되고 이 씨앗은 생산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다른 생명, 다른 가능성을 낳고 무언가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것을 낚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시인 단테 알기 에리도 어느 순간 “작은 재도 두 번째 큰 불꽃을 일으킨다” 고 말합니다. 즉, 작은 불꽃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작은 불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찾으십시오.

Alessandra: Grazie.

Michele: Grazie Emmaus.

Emmaus: Grazie a voi.

Michele: 엠마우스, 오늘 소식을 보면 교황님께서 아씨시에서 새로운 회칙 “모든 형제”에 서명하셨습니다. 한 트위터에는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형제애와, 인간적 친교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쓰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이 주제를 선택하신 것에 놀라셨나요?

Emmaus: 전혀요! 그 것은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그것을 반향하고, 이 회칙을 통해 인류의 필요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를 한데 모으기 원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인류의 고통을 파악하고, 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방향을 잃은 세상의 목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면하여 묻게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이해타산 없이 자신을 내어 주고, 지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방해없이, 완전히 내어 주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고, 일치의 은사, 끼아라의 은사 안에서 한 도움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가능함을 알게했고,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이 땅에서 심오한 일치를 경험을 했으므로 그 것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이 앞에서 “함께합시다, 함께합시다!” 라고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한 경험을 하게 한, 하나의 부르심을,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 모든이를 하나로’ 인 형제애로의 부르심이며, 일치에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내적으로 이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며 이는 우리를 높은 곳을, 멀리 바라보도록 청하며, 이 부르심은 이 일치가 하늘에서 사는 일치를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지상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살기를, 일치와 구분이 공존하며, 각자가 다른 이를 존중하고, 각자가 다른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각자가 다른 이가 드러나게 해 주고, 다른 이가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각자가 어느 모로 자신을 완전히 잃어 버리는 성삼위 안에서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스스로를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참되고 가장 깊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사는 것과 같이 커다란 일치, 이 지상에서도 살았으면 하는 일치의 예는 단 하나 뿐으로 예수님 만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하느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잃고, 인간들 사이에 내려오시어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순간에 모든 시기, 모든 조건의 사람들이 살았던 포기, 고통, 고뇌, 괴로움, 극단주의, 희생, 상처, 버림 받음을 커다란 사랑으로 자신의 것으로 할 줄 아셨기에 하느님과 사람 사이, 모든 사람 사이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사이에서 깨어진 일치를 재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예입니다. 우리가 이런 커다란 사랑을 지닐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 일치가 있으며, 이 일치가 가능하고, 이 일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곳에 계신 모든 분, 이것을 느끼는 분들, 이 순간 제말을 듣고, 이렇게 강력하고 중요한 약속을 하고자 하는 분들 모두가 함께 교황님께 첫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분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기를 바라니, 이미 무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이와 함께 세상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부인 끼아라 루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소 그룹이 인류를 관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 작지만 효과적인 입자가 되어 진정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내어 놓고 싶고,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 같이 하도록 초대합니다.

Alessandra: Grazie, Emmaus, 우리는 엠마우스와 함께 전 인류를 하나의 일치된 세계로 만들기 위해 발효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누룩이 되기 원합니다. Grazie, Emmaus!

## 12. 다음 약속과 결론

Michele: Alessandra.

Alessandra: 예, 얘기하세요 미켈레.

Michele: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Alessandra: 예, 하지만 아직 알려드릴 중요한 약속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세상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던 한 여자 전에 관한 것으로, 끼아라 루체 바다노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2010년 9월 25일 정확히 10년 전, 그는 복자가 되었는데, 오는 10월 7일 그의 선종 30주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끼아라 바다노 재단은 몇몇 행사를 조직하여 스트리밍을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를 직접 알았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정보에 대해서는 끼아라 루체 공식 사이트 [www.chiarabadano.org](http://www.chiarabadano.org)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Michele: 그리고 10 월 15 일에 '교육에 대한 국제 글로벌 콤팩트 행사'가 100%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사고방식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이 행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www.educationglobalcompact.org](http://www.educationglobalcompact.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lessandra: 그리고 10 월 23 일에서 25 일까지, "찬미받으소서 이후 5 년, 통합적 생태환경을 위한 새로운 방식들" 국제 회의가 열릴 것으로, 포콜라레운동의 생태환경 네트워크, 에코원에서 조직했습니다. [ecoone.org](http://ecoone.org) 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ichele: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경제가 11 월 19 일에서 21 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참석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정보는 사이트 [www.francescoeconomy.org](http://www.francescoeconomy.org)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Alessandra: 이제, 모든 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Michele: 알레, 아니에요!

Alessandra: 아니라고요?...

Michele: 다음 합동전화는 언제지요?

Alessandra: 사실, 막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합동전화는 12 월 5 일 이탈리아 시각 정오입니다.

Michele: 좋아요 알레! 모두 12 월 5 일에 봅시다! 빠지지 마세요.

Alessandra: 끝내기 전에 미켈레와 이 아주 특별한 합동전화를 가능하게 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Michele: 맞아요! 감사해요 알레,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Ciao!

Alessandra: Grazie! Ciao! A presto.

(음악과 엔딩 자막)